



정음의 자수 명인 백송(柏松) 이정희 명인.

궁중자수의 화려한 자태 엿보다

이정희 '실과 바늘 이야기'
정음 연지아트홀 전시관서
17일부터 23일까지 열려

조선시대 궁중자수의 화려한 자태를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자수전이 오는 17일부터 23일 까지 정음연지아트홀 전시관에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옛 궁중 자수의 재현과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킨 실용적 생활자수 민수(民繡) 작품들의 재현을 통해 우리 전통자수의 우수성과 그 섬세한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장에는 정음의 자수 명인 백송(柏松) 이정희명인의 자수작품 50여 점이 전시된다. 우리나라 전통자수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다양한 문양을 오방색 색감을 이용해 창작해 온 독특한 문화예술 장르로 18~19세기 폭발적인 유행기를 거쳤던 민화와 함께 민족적 해학과 재치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규방문화예술로 알려져 왔다. 조선시대 전통자수는 크게 궁중의 침선장들이 만들던 궁수와 백성들이 현실 생활에서 만들던 민수로 구분되어 왔다. 궁중자수 궁수는

궁중 수방(繡房)과 연결되어 분업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정치적 격변에 따라 수분과정(針線)이 점차 달라져 격식화되면서 화려하게 꾸며졌지만 대중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민간에서 전해지던 민수는 각 지방의 생활 여건과 풍속에 따라 다양한 수공예 작품으로 만들어져 궁중궁수의 정교함과 세련된 디자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서민들의 해학과 소망이 담겨 있어 실용화와 민화와 함께 대중적인 인기를 누려왔던 전통적인 수공예 장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통자수는 해방 이후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구의 값싼 기계식 대량생산 자수작품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서 오랜 전통을 이어왔던 수공예 자수시장은 낡은 전통으로 치부되었고, 이제는 소수의 자수 명인들만이 그 실낱같은 명맥을 잇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음시가 전통문화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마련한 이번 전시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자수 외길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정희 명인이 만들어 온 처녀작 궁수작품 20여 점과 민수작품 30여 점이 처음 민간에 공개된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로 일반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웠던 이정희 명인은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처음에는 한 뼘 한 뼘 수놓던 침선(針線)에 몰두했지만 점차 전통자수의 매력에 빠져 지난 40여 년 동안 수많은 전통자수 작품들을 완성해 왔다. 그 결과 1998년 제30회 신사임당 기념 자수 부 1위를 시작으로 2010년 올해의 장애인 대상(대통령), 2013년 장애인문화예술인대상(대통령상) 등을 수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초청되기도 했을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수명인으로 알려져 있다. 화려한 수상이력 만큼이나 개인전과 공동전, 협회전에도 다수의 작품들을 출품해 왔던 이정희 명인은 이번 전시를 위해 그동안 선보인바 없던 궁수작품과 민수작품들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해 다른 날다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정희 명인은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 신하들이 왕에게 아침문안을 드릴 때 입던 관복 흉대 비롯한 화려한 궁중자수 작품들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소박하지만 해학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민수 작품들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가 우리 전통자수의 진정한 멋과 진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음=김태환 기자

진안군, 영화 예술인 초청 팸투어

진안군은 어제와 오늘 영화감독과 촬영관계자, 예술인 등 20여명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팸투어는 영화상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진안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마이산과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등 진안고원의 주요명소를 탐방하고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힐링 체험을 했다. 예술인들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잘 알지 못했던 진안의 진면목을 알았고 작품 등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부

분이 많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다양한 매체에 진안이 소개될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안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진안의 숨은 매력을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진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완주군 화암사 창건설화 창작연극 선보인다

오늘 완주문예회관에서 '화암우화전' 공연

완주 경천면 화암사 창건설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연극 '화암우화전'이 무대에 오른다. 오늘 완주문예회관에서 만날 수 있는 이 공연은 신라시대 연화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부처가 현몽해 바위에 핀 꽃을 찾으라 했다. 용이 지키고 있었던 꽃은 공주의 병을 낫게 했다. 그 후 절을 지어 바위에 핀 꽃이라는 뜻으로 화암사라 명명했다는 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작품에서는 연화공주의 병을 고치려는 왕과 백성들의 노력을 통해 부성과의 협동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대학과 연계해 학생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해 지역에 대한 애乡심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전통적 문화콘텐츠를 젊은 감각으로 다채롭게 무대화했다"며 "이번 작품은 완주 9경 중 하나인 경천면의 '화암사 창건설화'를 기반으로 한 만큼 많은 공연을 통해 진한 감동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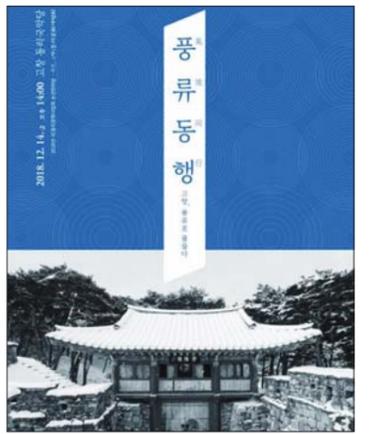


전했다. 화암우화전은 완주문예회관에서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7시 3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예약은 완주문화예술 홈페이지(<http://culture.wanju.go.kr>)를 통해 가능하다. 관람료는 무료다. /완주=이종복 기자

흥겨운 국악 함께 즐기는 감동의 무대 '풍류동행'

오늘 오후 2시 고창 동리국악당서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연말을 맞아 오늘 오후 2시, 흥겨운 국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2018 국악 송년한마당 '풍류동행(風流同行)'을 동리국악당에서 연다. 송년한마당 '풍류동행(風流同行)' 고창, 풍류로 물들다'는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는 현란한 춤과 신명 나는 가락으로 사람들의 흥을 돋우게 만드는 '진도복춤'을 시작으로, 단가 사철가(소리 신현타·정영용, 고수 양승환), 판소리 적벽가 중 군사설움(소리 정승환, 고수 신현타), 부채춤과 천안도(디딤애),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소리 윤석태, 고수 윤부연),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 잔치가는 대목(소리 남미희, 고수 양승환), 창작판소리 동학농민혁명가(소리에)를 전통예술의 멋과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더욱 신나고 흥을 돋우는 잔치로 마련하는 2부는 동리문화예술단의 남도풍류(새타령), 판소리 수궁가 중 약성가(소리 정호영, 고수 오흥민), 짚대소리로 풀어내는 춘산조(대금 원장현), 흥풀이-풍류지무(동리문화예술단),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 매 맞고 쓰러진 대목(소리 김정숙, 고수 오흥민)을 선사한다. 또한 대금산조에 의한 시나위(대금 원장현, 거문고 권민정, 아쟁 황승주, 가야금 김영연,



장구 오흥민), 남도민요(동백타령, 신사철가) 등을 명인, 명창들이 참여하여 전통국악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해 멋과 흥이 어우러진 신명나는 풍류동행(風流同行)의 판을 펼친다. 고창군 관계자는 "국악 송년한마당 풍류동행(風流同行)의 감동의 무대와 함께 한 해 동안의 고단했던 일들을 위로받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